모주석시사

赠给

上海知识青年

第七大队革委会

혁명위원회
革命委员会

1969.6.8.

모주석시사

민 족 출 판 사
1968년·북경

目　　录
목　　차

沁园春　长沙……………………………… 2
심원춘　장사……………………………… 3

菩萨蛮　黄鹤楼…………………………… 6
보살만　황학루…………………………… 7

西江月　井冈山…………………………… 8
서강월　정강산…………………………… 9

清平乐　蒋桂战争………………………10
청평악　장계 전쟁………………………11

采桑子　重阳……………………………12
채상자　중양……………………………13

如梦令　元旦……………………………14
여몽령　원단……………………………15

减字木兰花　广昌路上……………………16
감자 목란화 광창'길에서……………17

蝶恋花　从汀州向长沙……………………18
접련화　정주에서 장사로……………19

渔家傲　反第一次大"围剿"……………20
어가오　제 1 차 대 《포위 토벌》을
반격하여……………………………21

渔家傲　反第二次大"围剿"……………26
어가오　제 2 차 대 《포위 토벌》을
반격하여……………………………27

菩萨蛮　大柏地………………………28
보살만　대백지………………………29

清平乐　会昌…………………………30
청평악　회창…………………………31

忆秦娥　娄山关………………………32
억진아　루산관………………………33

十六字令三首…………………………34
십륙자령 3 수…………………………35

七　律　长征…………………………38
칠언 률시 장정………………………39

念奴娇　昆仑…………………………40
념노교　곤륜…………………………41

清平乐　六盘山………………………44
청평악　륙반산………………………45

沁园春　雪……………………………46
심원춘　눈……………………………47

七　律　人民解放军占领南京…………50
칠언 률시 인민 해방군
남경을 점령……………………51

七　律　和柳亚子先生…………………52
칠언 률시 류 아자 선생에게
화답함………………………………53

浣溪沙 和柳亚子先生……………………56
완계사 류 아자 선생에게 화답함……57

浪淘沙 北戴河………………………………60
랑도사 북대하………………………………61

水调歌头 游泳………………………………62
수조 가두 수영………………………………63

蝶恋花 答李淑一……………………………66
접련화 리 숙일에게 회답함…………67

七律二首 送瘟神……………………………70
칠언 률시 2 수 온역신을 보냄………71

七 律 到韶山…………………………………74
칠언 률시 소산에 이르러……………75

七 律 登庐山…………………………………76
칠언 률시 려산에 올라…………………77

七 绝 为女民兵题照……………………78
칠언 절구 녀민병 사진에
제자를 쓰노라…………79

七 律 答友人………………………………80
칠언 률시 벗에게 회답함…………81

七 绝 为李进同志题所摄庐山
仙人洞照……………………82

칠언 절구 리 진 동지가 찍은
려산 선인동 사진에
제자를 쓰노라…………83

七 律 和郭沫若同志………………84
칠언 률시 곽 말약 동지에게
화답함……………………85

卜算子 咏梅…………………………………88
복산자 매화를 읊노라………………89

七 律 冬云…………………………………92
칠언 률시 겨울 구름…………………93

满江红　和郭沫若同志……………………94
만강홍　곽 말약 동지에게
　　　　화답함……………………………95

모 주석 시사

37 수

沁 园 春

长 沙

一九二五年

独立寒秋，
湘江北去，
橘子洲头。
看万山红遍，
层林尽染；
漫江碧透，
百舸争流。
鹰击长空，
鱼翔浅底，
万类霜天竞自由。

심 원 춘

장 사

1925년

찬 가을
상강은 북으로 흐르는데
내 홀로 귤자주 머리에 섰노라.
바라 보니 천산은 산마다 붉고
층층 수림 숲마다 물 들었네.
온 강물 맑고 푸른데
뭇배들 다투어 흐르누나.
매는 장공을 가르고
고기는 물 속을 날거니
만물은 가을날 자유를 다투누나.

怅寥廓，
问苍茫大地，
谁主沉浮？

携来百侣曾游。
忆往昔峥嵘岁月稠。
恰同学少年，
风华正茂；
书生意气，
挥斥方遒。
指点江山，
激扬文字，
粪土当年万户侯。
曾记否，
到中流击水，
浪遏飞舟？

아, 광활하여라
묻노니, 창망한 대지에서
그 누가 모든 운명 주재하느냐?

벗들과 더불어 예 와 노닐었거니
생각하면 그 시절 벅찬 나날 많았더라.
나젊은 동학들
풍채와 재질이 한창 피여 나고
서생의 기개
줄기차게 뻗칠 때라
천하를 꾸짖고
글'발을 휘날리며
당년의 만호후를 분토로 여겼어라.
기억하는가
저 강심에 나아가 물을 갈아 칠 제
물'결이 나는 배도 막던 그 일을?

菩 萨 蛮

黄 鹤 楼

一九二七年春

茫茫九派流中国，
沉沉一线穿南北。
烟雨莽苍苍，
龟蛇锁大江。

黄鹤知何去？
剩有游人处。
把酒酹滔滔，
心潮逐浪高！

보 살 만

황 학 루

1927년 봄

망망한 구파는 나라 복판 흐르고
아득한 철'길은 남북을 꿰뚫었네.
안개비 자옥한데
구산, 사산은 대강을 가두었네.

황학은 어데 갔느냐?
놀이터만 남았구나.
잔 들어 도도한 강에 뿌리니
심장의 고동 물'결 따라 높아 가누나!

西 江 月

井 冈 山

一九二八年秋

山下旌旗在望，
山头鼓角相闻。
敌军围困万千重，
我自岿然不动。

早已森严壁垒，
更加众志成城。
黄洋界上炮声隆，
报道敌军宵遁。

서 강 월

정 강 산

1928년 가을

산 아래 군기 바라 보이고
산마루 고각 소리 서로 들리네.
적군이 천만 겹 에워 쌌다만
우리는 거연히 서 있노라.

삼엄한 보루 벌써 쌓았고
더구나 만중 일심 성새 이루었네.
황양계에 포'소리 울리더니
적군의 야간 도주를 알리네.

清平乐

蒋桂战争

一九二九年秋

风云突变，
军阀重开战。
洒向人间都是怨，
一枕黄粱再现。

红旗跃过汀江，
直下龙岩上杭。
收拾金瓯一片，
分田分地真忙。

청 평 악

장계 전쟁

1929년 가을

풍운이 돌변하더니
군벌들 싸움을 다시 벌렸네.
세상에 뿌리는 건 원한 뿐이어니
또다시 황량몽을 꾸누나.

붉은 기 정강을 뛰여 넘어
룡암으로, 상항으로 쳐 내려 갔네.
금구의 한 쪼각 거두어
논밭 나누기에 한창일세.

采桑子

重 阳

一九二九年十月

人生易老天难老，
岁岁重阳。
今又重阳，
战地黄花分外香。

一年一度秋风劲，
不似春光。
胜似春光，
寥廓江天万里霜。

채 상 자

중 양

1929년 10월

인생은 쉬이 늙어도 하늘은 늙을 줄 몰라
해마다 중양절 돌아 오네.
오늘 또 중양절이라
싸움터의 들국화 유난히 향기롭구나.

해마다 가을이면 세찬 바람 일어
봄'빛과는 다르네.
허나 봄'빛보다 좋아
광활한 만리 강천에 단풍이 불 타누나.

如 梦 令

元　　旦

一九三〇年一月

宁化、清流、归化，
路隘林深苔滑。
今日向何方，
直指武夷山下。
山下山下，
风展红旗如画。

여 몽 령

원　　단

1930년 1월

녕화, 청류, 귀화 땅
길 좁고 숲 깊고 이끼 미끄러웠네.
오늘은 어디로,
곧추 무이산 아래로.
산 아래, 산 아래
휘날리는 붉은 기 그림 같구나.

减字木兰花

广昌路上

一九三〇年二月

漫天皆白，
雪里行军情更迫。
头上高山，
风卷红旗过大关。

此行何去？
赣江风雪迷漫处。
命令昨颁，
十万工农下吉安。

감자 목란화

광창'길에서

1930년 2월

온 하늘 하얀데
눈 속의 행군 그 정서 더욱 높아라.
머리 우엔 높은 산,
붉은 기 펄펄 대관 넘누나.

가는 길은 어디냐?
눈보라 자욱한 감강 저 곳.
어제 명령이 내리자
십만 공농 길안으로 돌진하네.

蝶 恋 花

从汀州向长沙

一九三〇年七月

六月天兵征腐恶，
万丈长缨要把鲲鹏缚。
赣水那边红一角，
偏师借重黄公略。

百万工农齐踊跃，
席卷江西直捣湘和鄂。
国际悲歌歌一曲，
狂飙为我从天落。

접 련 화

정주에서 장사로

1930년 7월

류월의 천병 부패한 악당 무찌르며
천만 발 긴 바'줄로 곤붕을 묶으려네.
감강수 저 켠 한 지역은 붉은데
익측 부대 황 공략 공로 컸다네.

백만 공농 한결같이 일며나
강서를 휩쓸고 호남, 호북 들부시네.
비장한 국제가 높이 부르니
폭풍은 우릴 위해 하늘에서 터져 내리네.

渔 家 傲

反第一次大"围剿"

一九三一年春

万木霜天红烂漫，
天兵怒气冲霄汉。
雾满龙冈千嶂暗，
齐声唤，
前头捉了张辉瓒。

二十万军重入赣，
风烟滚滚来天半。
唤起工农千百万，
同心干，
不周山下红旗乱。*

어 가 오

제1차 대《포위 토벌》을 반격하여

1931년 봄

서리 찬 날 온갖 수목 붉게 타는데
천병들 노기 충천하누나.
룡강 일천봉에 안개 자욱한데
환성이 터진다,
앞에서 장 휘찬을 잡았다고.

이십만 적군 또다시 강서에 들어 오니
먼지 구름 반공을 뒤번지네.
천백만 공농 불러 일으켜
한 마음으로 싸우나니
불주산 아래 붉은 기 물'결 치리라.*

* 关于共工头触不周山的故事：

《淮南子·天文训》："昔者共工与颛顼争为帝，怒而触不周之山，天柱折，地维绝。天倾西北，故日月星辰移焉；地不满东南，故水潦尘埃归焉。"

《国语·周语》："昔共工弃此道也，虞于湛乐，淫失其身，欲壅防百川，堕高堙庳，以害天下。皇天弗福，庶民弗助，祸乱并兴，共工用灭。"（韦昭注："贾侍中〔按指后汉贾逵〕云：共工，诸侯，炎帝之後，姜姓也。颛顼氏衰，共工氏侵陵诸侯，与高辛氏争而王也。"）

《史记》司马贞补《三皇本纪》："当其（按指女娲）末年也，诸侯有共工氏，任智刑以强，霸而不王，以水乘木，乃与祝融战，不胜而怒，乃头触不周山崩，天柱折，地维缺。"

毛按：诸说不同。我取《淮南子·天文训》，共工

* 공공이 머리로 불주산을 떠받은 이야기에 대하여

《회남자·천문훈》에는 이렇게 씌여 있다. 《옛날 공공이 전욱과 왕위를 다투다가 노하여 불주산을 떠받는 바람에 하늘을 버티던 기둥이 부러졌고 땅을 매였던 바'줄이 끊어졌다. 하늘이 서북쪽으로 기울어졌기에 일월 성신은 옮겨지게 되였고 또한 땅의 동남쪽이 꺼지였기에 물과 먼지가 동남쪽으로 흐르게 되였다.》

《국어·주어》에는 이렇게 씌여 있다. 《옛날 공공이 이 도를 버리고 향락에 취하여 제 몸을 그르쳤다. 그는 세상에 해를 입히려고 하천을 죄다 막으며 언덕을 허물어 낮은 곳을 메우려 하였다. 그러나 황천이 복을 주지 않고 백성들이 돕지 않았기에 재화와 란리가 아울러 일어나 공공은 멸망하고 말았다.》(위 소는 다음과 같이 주해를 달았다. 《가시중〔후한 사람인 가 규를 가리킴〕은 이르기를, 공공은 제후이며 염제의 후예로서 성은 강씨이다. 전욱이 쇠패하게 되자 공공은 제후를 업신여기고 고신씨와 싸운 끝에 왕으로 되였다.》)

사마 정은 《사기》의 《삼황 본기》를 다음과 같

是胜利的英雄。你看，“怒而触不周之山，天柱折，地维绝。天倾西北，故日月星辰移焉；地不满东南，故水潦尘埃归焉。”他死了没有呢？ 没有说。 看来是没有死，共工是确实胜利了。

이 증보하였다. 《그의(녀와를 가리킴) 말년에 제후들 가운데 공공이 있었는데 모략과 형벌로 위세를 보이고 행패를 부리면서 왕도를 지키지 않았다. 그는 수덕으로 목덕을 대체하려고 축융과 싸우다가 이기지 못 하니 노하여 머리로 불주산을 떠받아 무너뜨렸다. 이리 하여 하늘을 버티던 기둥이 부러졌고 땅을 매였던 바'줄이 끊어졌다.》

저자의 말: 제설은 같지 않다. 나는 《회남자·천문훈》을 택한다. 공공은 승리한 영웅이다. 보시라, 《노하여 불주산을 떠받는 바람에 하늘을 버티던 기둥이 부러졌고 땅을 매였던 바'줄이 끊어졌다. 하늘이 서북쪽으로 기울어졌기에 일월 성신은 옮겨지게 되였고 또한 땅의 동남쪽이 꺼지였기에 물과 먼지가 동남쪽으로 흐르게 되였다.》 그는 죽었는가? 언급하지 않았다. 보아 하니 죽지 않았다. 공공은 확실히 승리하였다.

渔 家 傲

反第二次大“围剿”

一九三一年夏

白云山头云欲立，
白云山下呼声急，
枯木朽株齐努力。
枪林逼，
飞将军自重霄入。

七百里驱十五日，
赣水苍茫闽山碧，
横扫千军如卷席。
有人泣，
为营步步嗟何及！

어 가 오

제2차 대《포위 토벌》을 반격하여

1931년 여름

백운산 마루에선 구름도 일떠서고
백운산 아래에선 고함 소리 높은데
산천 초목 한결같이 떨쳐 나섰네.
수풀 이룬 총창 다가 드니
나는 장수 하늘에서 내렸는가.

보름에 칠백 리를 내밀었네
감수는 창망하고 민산은 푸르러라
멍석 말듯 천군을 휩쓸었거니.
흐느껴 우는 자 있구나
걸음마다 진 쳐 봤거늘 한탄해선
무엇 하랴!

菩薩蛮

大柏地

一九三三年夏

赤橙黄绿青蓝紫，
谁持彩练当空舞？
雨后复斜阳，
关山阵阵苍。

当年鏖战急，
弹洞前村壁。
装点此关山，
今朝更好看。

보 살 만

대 백 지

1933년 여름

적, 등, 황, 록, 청, 남, 자
누가 칠색 비단 잡고 공중에서 춤 추느냐?
비 그은 뒤 또다시 석양 비끼니
관산은 한결 더 푸르고 푸르구나.

그 해 벌어졌던 가렬한 싸움에
앞마을 담'벽에 탄알'구멍 뚫렸어라.
저 담'벽이 관산을 장식하니
오늘따라 더욱 보기 좋구나.

清 平 乐

会　　昌

一九三四年夏

东方欲晓，
莫道君行早。
踏遍青山人未老，
风景这边独好。

会昌城外高峰，
颠连直接东溟。
战士指看南粤，
更加郁郁葱葱。

청 평 악

회　　창

1934년 여름

동방이 밝아 온다
그대의 걸음 이르다 말라.
청산을 두루 밟았어도 사람은 늙지
않았거니
풍경은 예가 유독 좋구나.

회창성 밖의 높은 봉우리
봉이 봉이 잇대여 동해로 뻗었네.
전사들 바라 보는 남월
더더욱 울울 창창하여라.

忆秦娥

娄山关

一九三五年二月

西风烈，
长空雁叫霜晨月。
霜晨月，
马蹄声碎，
喇叭声咽。

雄关漫道真如铁，
而今迈步从头越。
从头越，
苍山如海，
残阳如血。

억진아

루산관

1935년 2월

서풍이 세찬데
장공에서 기러기 우네, 달 걸린 서리 찬
  새벽에.
달 걸린 서리 찬 새벽에
말발'굽 소리 부서지고
나팔 소리 목 메여라.

험요한 루산관 철벽 같다 말라
오늘은 대활보로 다시 넘노라.
다시 넘노라
푸른 산 바다 같고
지는 해 피 같구나.

十六字令三首

一九三四年到一九三五年

山，
快马加鞭未下鞍。
惊回首，
离天三尺三。*

其　二

山，
倒海翻江卷巨澜。
奔腾急，
万马战犹酣。

십륙자령 3 수

1934년~1935년

산!
달는 말에 채질하며 안장에서
　안 내렸네.
놀라와라 돌아 보니
하늘과 사이 석 자 세 치네.*

제 2 수

산!
강과 바다 뒤번지며 거센 물'결
　감아 치네.
네굽 안고 내달리며
만마 싸움에 한창이네.

其 三

山，
刺破青天锷未残。
天欲堕，
赖以拄其间。

＊民谣："上有骷髅山，下有八宝山，离天三尺三。人过要低头，马过要下鞍。"

제 3 수

산!
푸른 하늘 찌르고도 날은 상하지 않았네.
하늘이 무너지려는데
그 사이를 버티여 섰네.

＊민요: 《우는 고루산이요, 아래는 팔보산이라, 하늘과 사이 석 자 세 치네. 사람이 넘으려면 고개 숙여야 하고, 말이 넘으려면 안장을 내려야 하네.》

七 律

长　　征

一九三五年十月

红军不怕远征难，
万水千山只等闲。
五岭逶迤腾细浪，
乌蒙磅礴走泥丸。
金沙水拍云崖暖，
大渡桥横铁索寒。
更喜岷山千里雪，
三军过后尽开颜。

칠언 률시

장　　정

1935년 10월

홍군은 원정의 고난 겁 내지 않거니
만수 천산 무엇이랴 례사로 치네.
면면한 오령은 잔 물'결 이는듯
웅위한 오몽은 흙덩이 구는듯.
금사강물 철썩이는 구름'벼랑 따스하고
대도하에 가로 걸린 쇠바'줄 차가와라.
더더욱 반갑구나, 민산의 천리 눈
삼군은 지난 후 웃음꽃 피우네.

念奴娇

昆　仑

一九三五年十月

横空出世，
莽昆仑，
阅尽人间春色。
飞起玉龙三百万，*
搅得周天寒彻。
夏日消溶，
江河横溢，
人或为鱼鳖。
千秋功罪，
谁人曾与评说？

념 노 교

곤　륜

1935년 10월

태공을 가로 질러 우뚝 솟은
거한 곤륜
인간 춘색 날날이 굽어 보누나.
삼백만 옥룡 날아 치며*
온 하늘에 찬 기운 퍼뜨리네.
여름이면 녹아 내려
강하가 넘쳐 나
사람들 고기밥으로도 되네.
천추의 공과 죄를
그 누가 따져 보았더냐?

而今我谓昆仑：
不要这高，
不要这多雪。
安得倚天抽宝剑，
把汝裁为三截？
一截遗欧，
一截赠美，
一截还东国。
太平世界，
环球同此凉热。

* 前人所谓“战罢玉龙三百万，败鳞残甲满天飞”，说的是飞雪。这里借用一句，说的是雪山。夏日登岷山远望，群山飞舞，一片皆白。老百姓说，当年孙行者过此，都是火焰山，就是他借了芭蕉扇搧灭了火，所以变白了。

내 오늘 곤륜에 이르노니
이처럼 높이 솟지도 말고
이처럼 많은 눈 떠 이지도 말라.
어쩌면 하늘에 기대여 보검을 뽑아
너를 찍어 세 토막 내겠느냐?
한 토막은 구라파주에 보내고
한 토막은 아메리카주에 주고
한 토막은 동방 국가에 돌려
태평 세계에서
온 천하가 이 차고 더움 같이 하리라.

* 옛사람이 《삼백만 옥룡을 족치니 부서진 비늘, 떨어진 껍질 온 하늘에 흩날리네》라고 한 것은 날리는 눈을 말한 것이다. 여기에서 빌어 쓴 한 구절은 설산을 말한다. 여름날 민산에 올라 멀리 바라 보면 뭇산이 춤 추는듯 하고 온 천지가 새'하얗다. 백성들의 말에 의하면 손 행자가 이 곳을 지날 때는 모두 화염산이였는데 그가 파초선을 빌어다가 불을 껐기 때문에 희게 되였다고 한다.

清平乐

六盘山

一九三五年十月

天高云淡，
望断南飞雁。
不到长城非好汉，
屈指行程二万。

六盘山上高峰，
红旗漫卷西风。
今日长缨在手，
何时缚住苍龙？

청 평 악

륙 반 산

1935년 10월

하늘 높고 구름 맑은데
남으로 가는 기러기떼 아득히 바래네.
장성에 이르지 못하면 대장부 아니여라
손 꼽아 세여 보니 걸어 온 길 이만 리.

륙반산 상상봉에
붉은 기 서풍에 휘날리네.
오늘 이 손에 긴 바'줄 쥐였나니
언제 저 창룡 묶겠느냐?

沁 园 春

雪

一九三六年二月

北国风光，
千里冰封，
万里雪飘。
望长城内外，
惟馀莽莽；
大河上下，
顿失滔滔。
山舞银蛇，
原驰蜡象，*
欲与天公试比高。
须晴日，

심 원 춘

눈

1936년 2월

북국의 풍광
천리에 얼음 덮이고
만리에 눈 날리네.
바라 보니 장성 안팎은
어디라 없이 백설 천지
대하의 상하류도
갑자기 도도한 기세 잃었네.
산은 춤 추는 은배암이런가
고원은 줄달음 치는 흰 코끼리런가*
하늘과 높이를 비기려네.
날이 개여

看红装素裹，
分外妖娆。

江山如此多娇，
引无数英雄竞折腰。
惜秦皇汉武，
略输文采；
唐宗宋祖，
稍逊风骚。
一代天骄，
成吉思汗，
只识弯弓射大雕。
俱往矣，
数风流人物，
还看今朝。

* 原指高原，即秦晋高原。

바라 보면 붉은 단장 소복 차림
유난히 아릿다우리.

강산이 이렇듯 아름다와
수 많은 영웅들 다투어 허리 굽혔더라.
가석하게도 진 시황, 한 무제는
문재 좀 모자랐고
당 태종, 송 태조는
시재 좀 무디였네.
일대의 천교
칭키스칸도
활 당겨 독수리 쏠 줄 밖에 몰랐거니.
모두 지난 일이여라
풍류 인물 세려면
오늘을 보아야 하리.

* 고원은 진진 고원을 가리킴.

七　律

人民解放军占领南京

一九四九年四月

钟山风雨起苍黄，
百万雄师过大江。
虎踞龙盘今胜昔，
天翻地覆慨而慷。
宜将剩勇追穷寇，
不可沽名学霸王。
天若有情天亦老，
人间正道是沧桑。

칠언 률시

인민 해방군 남경을 점령

1949년 4월

종산 풍우 큰 변화 일어 나네
백만 대군 대강을 뛰여 넘노라.
룡반호거 예보다 오늘이 낫고
천지 개벽에 마음도 격앙하여라.
명예 탐 내여 초 패왕 본받지 말고
승승장구로 궁한 원쑤 추격하라.
하늘이 유정타면 하늘도 늙으리니
벽해가 상전 됨은 세상의 진리여라.

七 律

和柳亚子先生

一九四九年四月二十九日

饮茶粤海未能忘，
索句渝州叶正黄。
三十一年还旧国，
落花时节读华章。
牢骚太盛防肠断，
风物长宜放眼量。
莫道昆明池水浅，
观鱼胜过富春江。

칠언 률시

류 아자 선생에게 화답함

1949년 4월 29일

월해에서 차 마시던 일 잊을 길 없고
유주에서 시 부탁 받을 젠 단풍 들 때더니
서른 한 해만에 옛서울에 돌아 와
꽃 지는 시절에 좋은 시를 읊노라.
지나친 불평으로 애 끊지 말고
안계 넓혀 풍물을 멀리 내다 보시라.
곤명호의 물 열다고 나무랄 마소
물'고기 구경엔 부춘강보다 나으리.

附：柳亚子原诗

感事呈毛主席

开天辟地君真健，
说项依刘我大难。
夺席谈经非五鹿，
无车弹铗怨冯驩。
头颅早悔平生贱，
肝胆宁忘一寸丹！
安得南征驰捷报，
分湖便是子陵滩。

부록: 류 아자의 원시

소감을 모 주석께 올림

새 세계 개척하는 그대 참말 거룩하신데
항 우를 꾸짖기도 류 방을 믿기도
 나는 심히 어렵나이다.
자리 빼앗아 경서를 강술한 오록을
 당할 수 없고
수레 없다 검을 친 풍 환은 가궁도 하이다.
자신을 둔물이라 일찍부터 뉘우쳤지만
간담에 깃든 일편 단심이야 어이 잊으리까!
남으로 내려 가 승리 소식 알리며
엄 자릉 따라 낚시'대를 들가 하나이다.

浣 溪 沙

和柳亚子先生

一九五〇年十月

一九五〇年国庆观剧，柳亚子先生即席赋浣溪沙，因步其韵奉和。

长夜难明赤县天，
百年魔怪舞翩跹，
人民五亿不团圆。

一唱雄鸡天下白，
万方乐奏有于阗，
诗人兴会更无前。

완 계 사

류 아자 선생에게 화답함

1950년 10월

1950년 국경절 공연을 관람할 때 류 아자 선생이 즉석에서 완계사를 지었기에 그 운을 밟아 화답한다.

지리한 밤 밝기 어렵던 이 적현에
백년 동안 마귀떼 너울너울 춤 추어
오억 인민 단란히 모일 수 없었네.

수탉이 울자 천하는 밝아
여러 민족 주악 속에 위텐곡도 울리니
시인의 흥치 비길 바 없구나.

附：柳亚子原词

十月三日之夕于怀仁堂观西南各民族文工团、新疆文工团、吉林省延边文工团、内蒙文工团联合演出歌舞晚会，毛主席命填是阕，用纪大团结之盛况云尔！

火树银花不夜天。
弟兄姊妹舞翩跹。
歌声唱彻月儿圆。*

不是一人能领导，
那容百族共骈阗？
良宵盛会喜空前！

* 新疆哈萨克族民间歌舞有《圆月》一歌云。

부록: 류 아자의 원사

10월 3일 밤, 회인당에서 서남 각 민족 문공단, 신강 문공단, 길림성 연변 문공단, 내몽고 문공단이 련합으로 출연하는 가무 공연을 관람할 때 모 주석께서는 대단결의 성황을 노래하는 사를 지으라고 하셨다!

색등나무 눈부시여 대낮 같은데
형제 자매 너울너울 춤 추며
《둥근 달》 노래 목청 높이 부르네.*

그 이의 영명하신 령도가 아니였다면
어찌 이 많은 민족 한 자리에 모이랴?
즐거운 밤 성대한 모임 한 없이 기쁘구나!

* 신강 까자흐족 민간 가무에 《둥근 달》이라는 노래가 있다.

浪 淘 沙

北 戴 河

一九五四年夏

大雨落幽燕，
白浪滔天，
秦皇岛外打鱼船。
一片汪洋都不见，
知向谁边？

往事越千年，
魏武挥鞭，
东临碣石有遗篇。
萧瑟秋风今又是，
换了人间。

랑 도 사

북 대 하

1954년 여름

큰비 유연에 퍼붓고
흰 물'결 하늘에 치솟는데
진황도 밖에서 고기 잡는 배들
왕양한 대해에 한 척도 안 보이니
어디로 갔느냐?

천년도 넘는 옛'일
위 무제 채찍 휘두르며
동으로 갈석에 이르러 시편 남겼더라.
소슬한 가을'바람 오늘도 불건만
세상은 바뀌였구나.

水调歌头

游　泳

一九五六年六月

才饮长沙水，
又食武昌鱼。
万里长江横渡，
极目楚天舒。
不管风吹浪打，
胜似闲庭信步，
今日得宽馀。
子在川上曰：
逝者如斯夫！

风樯动，

수조가두

수　영

1956년 6월

방금 장사의 물을 마셨는데
또 무창의 생선을 맛 보네.
만리 장강 가로 건느며
바라 보니 초 나라 하늘가 없이 넓구나.
바람 세차고 파도 높아도
아늑한 정원의 산보보다 나아
오늘 내 마음 후련하여라.
공자 내'가에서 이르기를
《흘러 가는 것이 이와 같느니라!》

바람에 돛대 움직이고

龟蛇静，
起宏图。
一桥飞架南北，
天堑变通途。
更立西江石壁，
截断巫山云雨，
高峡出平湖。
神女应无恙，
当惊世界殊。

구산, 사산 고요한데
웅대한 설계도 펼쳐졌네.
큰 다리 나는듯 남북에 놓이나니
천험한 깊은 곬이 대통로 되리.
그 뿐이랴 서강에 석벽을 쌓아
무산의 구름'비 끊어 막으면
높은 삼협에 거울 같은 호수 나타나리.
무산 신녀는 무사하리니
그도 세상 변천엔 정녕 놀라리라.

蝶 恋 花

答 李 淑 一

一九五七年五月十一日

我失骄杨君失柳，
杨柳轻飏直上重霄九。
问讯吴刚何所有，
吴刚捧出桂花酒。

寂寞嫦娥舒广袖，
万里长空且为忠魂舞。
忽报人间曾伏虎，
泪飞顿作倾盆雨。

접 련 화

리 숙일에게 회답함

1957년 5월 11일

나는 어엿한 양씨 잃고 그대는 류씨 잃어
양류는 훨훨 날아 구중천에 올랐네.
오 강더러 무엇이 있느냐 물었더니
오 강은 계화주 받들어 내놓았네.

외로운 상아도 너른 소매 펼치여
만리 장공에서 충혼 위해 춤 추네.
갑자기 인간에서 범 지운 소식 알려 오니
삽시에 눈물이 날리여 억수로 쏟아지네.

编者注：这首词是毛泽东同志在一九五七年五月写给湖南长沙第十中学语文教员李淑一同志的。词中"柳"是指李淑一同志的爱人柳直荀烈士。他是毛泽东同志的老战友，一九二三年加入中国共产党，曾任湖南省政府委员、湖南省农民协会秘书长，参加过南昌起义，一九三二年在湖北洪湖战役中牺牲。"骄杨"是指杨开慧烈士。她在一九三〇年红军退出长沙后，为反动派何键杀害，她是李淑一同志的好朋友。一九五七年二月，李淑一同志把她写的一首纪念柳直荀同志的词，寄给毛泽东同志。毛泽东同志写了这首词答她。

편자 주: 이 사는 모 택동 동지께서 1957년 5월에 호남성 장사 제 10 중학교 어문 교원인 리 숙일 동지에게 써 보낸 것이다. 사 가운데의 《류씨》는 리 숙일 동지의 애인인 류 직순 렬사를 가리킨다. 류 직순 동지는 모 택동 동지의 오랜 전우로서 1923년에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였으며 일찍 호남성 정부 위원, 호남성 농민 협회 비서장을 력임하였고 남창 기의에 참가하였다. 그는 1932년 호북성 홍호 전역에서 희생되였다. 《어엿한 양씨》는 양 개혜 렬사를 가리킨다. 양 개혜 동지는 1930년 홍군이 장사에서 철거한 후 반동파 하 건에게 살해 당하였다. 양 개혜 동지는 리 숙일 동지의 친우였다. 1957년 2월에 리 숙일 동지는 류 직순 동지를 기념하여 지은 사 한 수를 모 택동 동지에게 보내였다. 이에 모 택동 동지께서는 이 사를 지으시여 리 숙일 동지의 사에 회답하셨다.

七律二首

送 瘟 神

一九五八年七月一日

读六月三十日人民日报，余江县消灭了血吸虫。浮想联翩，夜不能寐。微风拂煦，旭日临窗。遥望南天，欣然命笔。

绿水青山枉自多，
华佗无奈小虫何！
千村薜荔人遗矢，
万户萧疏鬼唱歌。
坐地日行八万里，
巡天遥看一千河。

칠언 률시 2 수

온역신을 보냄

1958년 7월 1일

여강현에서 흡혈충을 박멸했다는 6월 30일 부 《인민 일보》의 보도를 읽고 련달아 떠오르는 생각에 밤새껏 잠을 이루지 못 했다. 미풍이 흘러 들고 아침 해'살이 창문에 비낄 제 남쪽 하늘을 멀리 바라 보며 기꺼이 붓을 든다.

록수 청산 많은들 무슨 소용 있으랴
화 타도 작은 벌레 어쩔 수 없었더라!
마을마다 황폐한데 사람들 허탈하고
집집마다 스산한데 귀신은 노래 불렀네.
땅에 앉아 팔만 리를 하루에 달리고
하늘을 돌며 수천 은하수 바라 보았네.

牛郎欲问瘟神事,
一样悲欢逐逝波。

其　二

春风杨柳万千条,
六亿神州尽舜尧。
红雨随心翻作浪,
青山着意化为桥。
天连五岭银锄落,
地动三河铁臂摇。
借问瘟君欲何往,
纸船明烛照天烧。

온역신의 사정을 견우가 묻는다면
슬픔도 기쁨도 물'결 따라 흐른다 하리.

제 2 수

버드나무 천실만실 봄'바람에 춤 추고
신주의 륙억 인민 저마다 요순일세.
붉은 비는 마음 따라 물'결 이루고
푸른 산은 뜻 대로 다리가 되네.
하늘에 닿은 오령엔 괭이'날 번쩍이고
휘두르는 쇠팔뚝에 삼하가 지동 치네.
묻노라 온역신아, 어디로 가려느냐?
종이배, 밝은 초'불 하늘 높이 타 오른다.

七　律

到　韶　山

一九五九年六月

一九五九年六月二十五日到韶山。离别这个地方已有三十二周年了。

别梦依稀咒逝川，
故园三十二年前。
红旗卷起农奴戟，
黑手高悬霸主鞭。
为有牺牲多壮志，
敢教日月换新天。
喜看稻菽千重浪，
遍地英雄下夕烟。

칠언 률시

소산에 이르러

1959년 6월

1959년 6월 25일에 소산에 이르렀다. 이 곳을 떠난 지 어느덧 32 주년이 된다.

그리별 꿈 같구나 저주로운 지난 세월
서른 두 해 전의 고향 마을이여!
붉은 기는 농노의 창 휘감아 올리고
검은 손은 패자의 채찍 높이 들었더라.
희생된 선렬들 그 뜻도 장하여라
일월을 휘여 잡아 새 세계 이룩하네.
물'결 치는 오곡을 기꺼이 보노라니
전야의 영웅들 석연 속에 들아 오네.

七律

登庐山

一九五九年七月一日

一山飞峙大江边，
跃上葱茏四百旋。
冷眼向洋看世界，
热风吹雨洒江天。
云横九派浮黄鹤，
浪下三吴起白烟。
陶令不知何处去，
桃花源里可耕田？

칠언 률시

려산에 올라

1959년 7월 1일

대강'가에 날아 와 우뚝 솟은 산
사백 굽이 수림'길 단숨에 올랐네.
대양 저 편 세계를 찬 눈'길로 보나니
열풍은 비를 몰아 강천에 뿌리네.
구름 비낀 구파에 황학이 떴고
물'결 내리는 삼오에 흰 연기 이누나.
도 잠이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어라
도화원에서 밭을 갈 수 있느냐?

七 绝

为女民兵题照

一九六一年二月

飒爽英姿五尺枪，
曙光初照演兵场。
中华儿女多奇志，
不爱红装爱武装。

칠언 절구

녀민병 사진에 제자를 쓰노라

1961년 2월

씩씩한 자태에 오 척의 총
련병장에 서광이 비치네.
중화의 딸 뜻도 장하여
단장 안 즐기고 무장 즐기네.

七　律

答　友　人

一九六一年

九嶷山上白云飞，
帝子乘风下翠微。
斑竹一枝千滴泪，
红霞万朵百重衣。
洞庭波涌连天雪，
长岛人歌动地诗。
我欲因之梦寥廓，
芙蓉国里尽朝晖。

칠언 률시

벗에게 회답함

1961년

구의산 마루에 흰 구름 날더니
제자가 바람 타고 푸른 산을 내리네.
한 가지 아롱 반죽 천 방울의 눈물이요
만 송이 붉은 노을 백 겹의 채의로다.
동정호 솟는 물'결 하늘에 닿는
　눈'발이요
장도 사람 부르는 노래 지동 치는 시로다.
하여 내 광활한 천지를 생각했거니
부용국 그 어디나 아침 해'빛
　찬란하여라.

七　绝

为李进同志题所摄庐山仙人洞照

一九六一年九月九日

暮色苍茫看劲松，
乱云飞渡仍从容。
天生一个仙人洞，
无限风光在险峰。

칠언 절구

리 진 동지가 찍은 려산 선인동 사진에 제자를 쓰노라

1961년 9월 9일

저문 빛 창연한데 저 억센 소나무
흑운이 날아 넘어도 태연하구나.
하늘이 여기에 선인동 내였나니
절승 경개는 험한 봉에 있어라.

七　律

和郭沫若同志

一九六一年十一月十七日

一从大地起风雷，
便有精生白骨堆。
僧是愚氓犹可训，
妖为鬼蜮必成灾。
金猴奋起千钧棒，
玉宇澄清万里埃。
今日欢呼孙大圣，
只缘妖雾又重来。

칠언 률시

곽 말약 동지에게 화답함

1961년 11월 17일

대지에 거세찬 폭풍뢰 터지자
백골'더미에서 요정이 살아 나네.
당승은 어리석어 일깨울 수 있으나
요정은 사악하여 재난만 가져 오리.
금잔나비 힘차게 천균봉 휘둘러
옥우의 만리 티끌 말끔히 가시였네.
오늘 손 대성을 소리 높이 환호함은
요사한 안개 또다시 옴이여라.

附：郭沫若原诗

看《孙悟空三打白骨精》

人妖颠倒是非淆，
对敌慈悲对友刁。
咒念金箍闻万遍，
精逃白骨累三遭。
千刀当剐唐僧肉，
一拔何亏大圣毛。
教育及时堪赞赏，
猪犹智慧胜愚曹。

부록: 곽 말약의 원시

《손 오공이 백골정을 세 번 치다》를 보고

사람과 요귀 전도하고 시비 뒤섞어
적에겐 자비하고 벗에겐 훼방 놓네.
금고의 주문 천만 번 외우니
백골정이 세 번이나 도망을 쳤네.
당승은 칼탕 맞아 마땅하고
털 한 대 뽑은들 손 대성에게 무슨 해 되랴.
제때에 가르침 받으니 칭찬할 만 하고
저팔계도 지혜로와 멍청이보다 낫구나.

卜 算 子

咏 梅

一九六一年十二月

读陆游咏梅词，反其意而用之。

风 雨 送 春 归，
飞 雪 迎 春 到。
已 是 悬 崖 百 丈 冰，
犹 有 花 枝 俏。

俏 也 不 争 春，
只 把 春 来 报。
待 到 山 花 烂 漫 时，
她 在 丛 中 笑。

복 산 자

매화를 읊노라

1961년 12월

륙 유의 사 《매화를 읊노라》를 읽고 반의로 쓴다.

비'바람 봄을 바래고
눈보라 봄을 맞네.
벼랑에 얼음 백 길이언만
꽃가지는 어여쁘구나.

어여뻐도 봄'빛을 다투지 않고
봄 소식만 알리네.
산꽃이 란만할 젠
꽃 서리 속에서 웃는다네.

附：陆游原词

驿外断桥边，
寂寞开无主。
已是黄昏独自愁，
更著风和雨。

无意苦争春，
一任群芳妒。
零落成泥碾作尘，
只有香如故。

부록: 륙 유의 원사

역 밖의 끊어진 다리'가에
임자 없이 쓸쓸히 피였네.
날 저물어 외로이 시름하는데
비'바람마저 치는구나.

구태여 봄'빛 다툴 생각도 없이
뭇꽃들의 시샘에 내맡기리.
떨어져 진흙 되고 갈리여 티끌 되여도
향기만은 여전하구나.

七　律

冬　云

一九六二年十二月二十六日

雪压冬云白絮飞，
万花纷谢一时稀。
高天滚滚寒流急，
大地微微暖气吹。
独有英雄驱虎豹，
更无豪杰怕熊罴。
梅花欢喜漫天雪，
冻死苍蝇未足奇。

칠언 률시

겨울 구름

1962년 12월 26일

겨울 구름 짓누르며 눈'송이 흩날리니
백화가 분분히 지여 한때 성기구나.
하늘엔 찬 바람 윙윙 불어 쳐도
대지엔 따스한 바람 솔솔 부누나.
세상에 범 쫓는 영웅이 있거늘
하물며 곰 겁 낼 호걸이 있을소냐.
매화는 쏟아지는 눈을 즐기거니
파리 얼어 죽는 건 이상할 것 없어라.

满 江 红

和郭沫若同志

一九六三年一月九日

小小寰球，
有几个苍蝇碰壁。
嗡嗡叫，
几声凄厉，
几声抽泣。
蚂蚁缘槐夸大国，
蚍蜉撼树谈何易。
正西风落叶下长安，
飞鸣镝。

만 강 홍

곽 말약 동지에게 화답함

1963년 1월 9일

작디 작은 지구에서
파리 몇 마리 벽에 부딪쳤네.
앵ㅡ앵
구슬피 우는구나
흐느껴 우는구나.
개미 홰나무 등 대고 대국이라 뽐내네
왕개미 나무 흔들자니 어이 될소냐.
서풍에 지는 락엽 장안에 떨어지나니
우는 화살 날려라.

多少事，
从来急；
天地转，
光阴迫。
一万年太久，
只争朝夕。
四海翻腾云水怒，
五洲震荡风雷激。
要扫除一切害人虫，
全无敌。

많은 일
종래로 급하거니
천지는 돌고
광음은 재촉한다.
일만년 너무 오라
분초를 다퉈야 하리.
사해를 뒤번지며 노한 파도 치솟고
오주를 뒤흔들며 폭풍뢰 터진다.
온갖 해인충 쓸어 버리리니
대적할 자 없어라.

附：郭沫若原词

沧海横流，
方显出英雄本色。
人六亿，
加强团结，
坚持原则。
天垮下来擎得起，
世披靡矣扶之直。
听雄鸡一唱遍寰中，
东方白。

太阳出，
冰山滴；
真金在，
岂销铄？
有雄文四卷，
为民立极。
桀犬吠尧堪笑止，
泥牛入海无消息。
迎东风革命展红旗，
乾坤赤。

부록: 곽 말약의 원사

창해가 횡류하니
영웅의 본색 나타나네.
륙억 인민
굳게 뭉쳐
원칙을 견지하누나.
하늘이 무너져도 떠받들고
세상이 어지러워도 바로잡으리.
수탉 울음 소리 온 누리에 퍼지니
동방이 밝아 오네.

태양이 솟아
빙산은 녹아도
순금이야
어찌 녹으랴?
네 권의 웅문
인민 위해 준칙 세웠네.
걸주의 개 요순 보고 짖으니 우습기 그지없고
진흙소 바다에 들어 가더니 소식 없구나.
혁명의 붉은 기 동풍에 휘날려
하늘땅이 붉구나.

本书根据人民文学出版社1967年5月第1版1968年3月第2次印刷版本译出。

이 책은 인민 문학 출판사 1967년 5월 제 1 판 1968년 3월 제 2 차 인쇄본에 의하여 번역하였다.

毛主席诗词

(朝 鲜 文)

民族出版社出版　新华书店发行
珲春县印刷厂印刷

1968年12月第1版
1968年12月延边第1次印刷
书号 M1049(6)132　每册 0.26元